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이 없으면 오만함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7월 18일)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 ‘불교성전’ e북 출시 수지독송 확산 기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올해 2월 조계종 첫 종단본 〈불교성전〉 출간 후 법공양 불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불자들이 쉽게 수지독송 할 수 있는 전자책(이하 e북) 형태의 불교성전이 출시됐다.

조계종 출판사(대표 남배현)는 8월 9일 〈불교성전〉 e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교성전〉 e북 출시는 불교성전 편찬 당시부터 기획된 사업으로 약 1개월간 제작기간을 거쳤다. 현재 온라인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리디북스 등 서점 플랫폼에서 구입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e북 형태로 된 〈불교성전〉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종이로 된 〈불교성전〉은 불교경전 핵심을 최대한 추렸지만 어쩔 수 없이 총 704페이지에 달하는

**인터넷 서점서 구입 가능**
**스마트폰·태블릿서 활용**
**종이책 부피 등 단점적고**
**보관·음성 지원 등 장점**

부피를 자랑했다. 보급 후 불자대중들 사이에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불교성전〉을 수지독송 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남배현 조계종출판사 대표는 “장소 제한 등이 사라져 접근성이 편하고 좋은 것이 장점”이라며 “스마트폰, 태블릿을 비롯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성전을 접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e북 출시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용가능한 불교성전 오디오북 제작도 진행 중이다. 스님들이 성우로 참여하여 〈불교성전〉을 듣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북의 가장 큰 장점은 글을 읽기 힘든 상황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TTS(Text-to-Speech) 서비스다. 텍스트화된 e북의 경우 TTS 기능을 활성화하면 인공지능이 내용을 읽어준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차량 운전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요긴하다.

구입 후 배송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원기기에서 읽을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한 점도 장점이다. PC를 활용해 키워드 검색, 용어 검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꼽힌다.

e북의 이 같은 장점에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종이책 콘텐츠의 e북 전환을 해왔다. 조계종 포교원은 2018년부터 그동안 종이로 발행되던 〈법회와 설법〉을 e북 형태로 제작해 매월 1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요 학술단체와 잡지들이 e북 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4월부터 성철 스님 관련 콘텐츠를 e북으로 제공한다. 월간 〈고경〉과 성철사상연구원 학술지 〈퇴옹학보〉를 모바일 연동 사이트에 게재하고 e북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불교계 대표 잡지인 〈불교평론〉 또한 계간지로 발행해 온 잡지를 모두 전자책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무료 공개했다. 인터넷 불교뉴스 사이트 e붓다는 각 사찰 사보들을 e북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e북 구입 뿐만 아니라 서적을 대여하는 불교계 기관도 눈길을 끈다.

동국대와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등은 도서관 사이트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 대출증 이용자를 포함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자책 대여서비스를 지원한다. 1인당 10권, 10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각 도서관 사이트에 가입하면 이용 가능하다. 〈육조단경〉 〈유식삼십송〉 등을 e북으로 볼 수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전통적인 종이책의 영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아직 e북 분야가 불교계에서는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불교성전〉의 역할을 생각하면 e북 출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를 주도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이번 〈불교성전〉 e북 출시를 계기로 법공양 불사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사찰 법회 활용 등에서는 종이책이 장점이 많지만, 일반불자들의 수지독송 측면에서는 e북의 장점이 크다”며 “e북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장애인용 불교성전이나 오디오북과 같이 〈불교성전〉도 다양해질 것이다. 이에 불자들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향후 법공양 불사의 폭을 다양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코로나 시대, 이젠 학위 수여도 찾아갑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8월 19일 2021년도 가을 학위수여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동국대의 이번 학위수여식은 100% 사전녹화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을 동국대 유튜브 공식계정을 상영하며 진행됐다. 특히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선별된 5명의 졸업생에게 진행된 ‘찾아가는 학위 수여식’은 눈길을 끌었다. 윤성이 총장 등은 2일 동안 졸업생이 원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 학위를 수여했다. 사진은 7학기만에 조기 졸업한 박민혜 봉은사 종무원에게 윤성이 총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모습이다. 봉은사 주지 원경 스님도 참석해 함께 축하하고 있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제공=동국대 소통홍보팀

## 금강산 옛 사찰 순례길 복원 나선다

**민추본·고성군, 9월 14일 업무협약 예정**

**민통선내의 폐사지 조제암 등**
**고찰 복원·문화재 보수 연계**
**8월말 지표조사·10월 세미나**
**지속 가능한 남북평화 추진에**
**새로운 협력모델로서도 ‘주목’**

최근 남북정부간 통신연락선이 복원과 단절을 거듭하며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그간 전통문화에 기반한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간 교두보 역할을 해왔던 불교계 역시 근래에는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의 공식적인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예측불가능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목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는 8월 19일 ‘금강산 옛 순례길 복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고성군과 공동으로 옛 스님들의 발자취가 새겨진 금강산 순례길을 발굴, 복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순례길 복원 뿐 아니라 민통선 내 폐사지를 조사, 발굴해 복원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어, 남북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사업으로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민추본과 고성군은 9월 14일 고성군과 금강산 순례길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고성군수 집무실에서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민추본은 금강산 옛 순례길 복원사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고성군(군수 함명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고성 건봉사(주지 현담)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김용현) 등 유관기관과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현지답사 및 조사에 나섰으며, 문헌기록과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8월 말경 고성군 민통선 내 폐사지인 조제암에 대한 지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금강산 옛길 및 조제암의 복원가치와 남북교류 활용방안’을 주제로 그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해당 세미나는 봉은사(주지 원명)의 후원으로 열린다.

금강산 순례길 복원은 단순히 남과 북을 잇는 옛길 복원의 의미를 넘어, 중장기적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남측 순례길과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학술·현장조사를 통한 복원 토대를 구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북측과의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8월 지표조사에 이어 고성 통일전망대와 연계한 조제암터 성지순례도 계획 중이며, 고성군을 시작으로 남북접경지역의 여러 지자체와도 추가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민추본 관계자는 “금강산 옛 순례길이 남북을 연결하는 또 다른 길이자 한반도를 대표하는 명소길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화 순례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 조계종 종정예하 부단한 정진 당부

**8월 22일 하안거 해제법어**

신축년 하안거 기간 중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용맹정진에 나선 수좌들이 8월 22일 해제일을 맞아 일제히 산문을 나섰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대종사는 “화두를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하여 일념(一念)이 지속되도록 정진(精進)하고 또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진제 대종사는 하안거 결제법어를 통해 ‘금생에 기필코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간절한 각오로 화두를 참구하면 누구라도 진리(眞理)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신축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의하면 올 하안거에는 전국 97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1곳)에서 총1883명(총림 248명, 비구 1045명, 비구니 590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 됐다.

〈종정·방장 해제법어 6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NAVER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